

쌀의 전설

글 | 로스비 모히카 성

그림 | 미아 라고스

글 | 로스비 모히카 성 (Rosevi Mojica-Sung)

그림 | 미아 라고스 (Mia Lagos)

편집 | 김은파, 이수인, Mike Jaffe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베트남어 번역 | 황티장

중국어 번역 | Wenting Du, 교정: 이흠

한국어 번역 | 김은파

태국어 번역 | 김주영, 감수: 분타리까 너이씨 (บุญทริกา น้อยศรี), 교정: 채혜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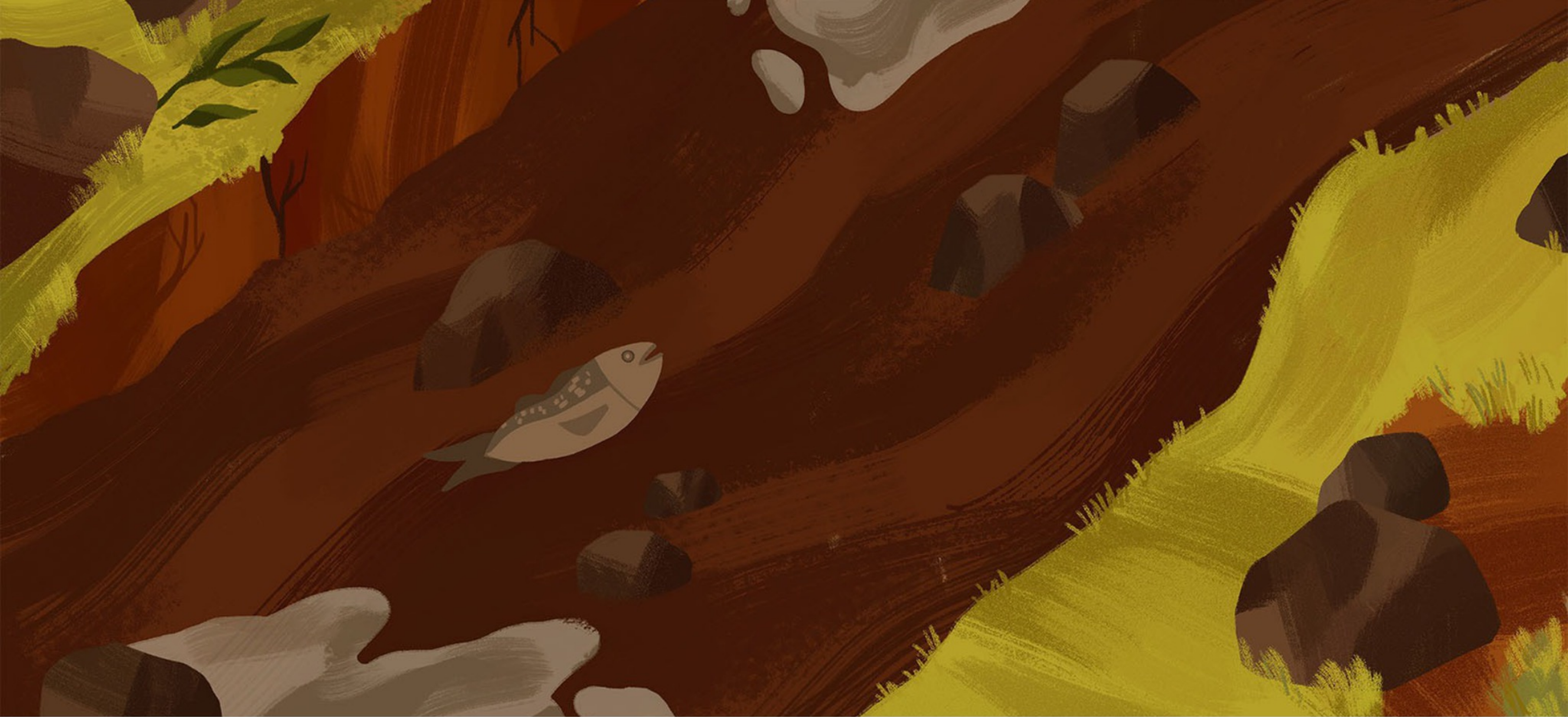
목소리 | 한국어: 윤성혜, 베트남어: 레 쉐언 비, 중국어: 곽효여,

영어: 제인 페인터, 태국어: 페와 떼차마하몽콘





옛날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부족 사람들은 강에서 잡은 물고기와 나무에서
떨 과일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자연에서 얻은 음식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무는 죽어 가고 강은 바싹바싹 말라 갔습니다. 자연에서 구하던 음식들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을 버틸 정도의 식량만 남았습니다. 먹을거리를 구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어리고 뛰어난 사냥꾼인 아니타를 불렀습니다. 아니타는 어릴 때부터 숲속에서 음식을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20살이 된 아니타는 영리하고 강하고 용감했습니다. 말을 타고 멀리까지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야겠어요.” 아니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을 찾아서 돌아올게요.” “네가 잘 해낼 거라는 걸 알아. 엄마는 항상 너를 믿는단다. 몸조심하렴!” 하고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물과 말린 과일을 준비해 두었어. 배고플 때 먹으렴!” 아빠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타가 음식을 찾아 헤매는 사이 5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푸르른 나무나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타는 무척 지쳤고 아니타의 말도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아니타는 커다란 바위 뒤에서 쉬면서 마지막 남은 말린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금빛으로 물들이며 지는 태양을 바라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아니타는 과일이 가득 담긴 커다란 바구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바나나와 망고, 파인애플이네! 여긴 어디지?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아니타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눈을 감았다 떴다 보았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잘 익은 바나나를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먹으렴, 아니타야. 너는 강하고 건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름다운 요정이었습니다. “나는 이 숲을 돌보는 요정이란다. 네가 아이일 때부터 너를 지켜봤어. 너는 왜 여기에 있니?” 요정이 물었습니다. 아니타가 말했습니다. “저희 부족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요. 과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배가 고프거든요!”



“이리로 오렴, 아니타야. 내 정원으로 가자.” 하고 요정이 말했습니다. 정원은 바람에 흔들리는 곡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낱알들이 보이니? 저걸 거두는 것을 도와주렴.” 아니타는 요정을 도와 낱알들을 거뒀습니다. 요정은 낱알을 찢어 황금빛 껍질을 벗기는 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하얀색 알맹이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혔습니다. “맛있어요!” 아니타가 말했습니다.



요정이 말했습니다. “이 곡식은 ‘팔라이’, 쌀이란다. 부족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이 곡식을 심으렴. 낱알을 거둘 때마다 다시 심을 수 있게 어느 정도 남겨 둬야 한다. 쌀농사 짓는 법을 익히고 부족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렴.”
아니타는 밥을 배불리 먹고 잠깐 낮잠을 잤습니다.



아니타는 얼굴에 떨어지는 빗방울 때문에 잠에서 깬습니다. 눈을 뜬
아니타는 오른손에 뭔가 쥐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쌀이
들어 있는 ‘바용’이었습니다. 바용은 마른 나뭇잎을 엮어서 만드는 필리핀의
전통 가방입니다.



아니타는 자신이 있는 곳이 요정의 정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니타는 커다란 바위 뒤에 있었고 말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 건가?” 아니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빛 곡식은 진짜인걸! 이걸 부족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야겠어. 요정님, 고맙습니다!”



아니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아니타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니타는 모두에게 황금빛 곡식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정이 이야기해 준 모든 것을 기억해 내서 사람들에게 쌀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 맛있는 쌀을 먹게 되었습니다.

“쌀의 전설”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